



대학교수 창업 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목진휴
국민대 사회과학부 교수

최근 일간지에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에 대한 대학별 평가 결과가 나왔다. 대학에 따라 열심히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대학교수의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 중 눈에 띄는 점은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나 다른 연구에 인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 사람의 연구가 다른 사람의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의 창출과 발전이 지식 생산자들 간의 지식의 공유와 비판 그리고 지식의 누적적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연구 업적 평가에 있어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었던 점이 교수들의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나 산업 현장에 활용되었는가 하는 항목이다. 사회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고, 기술의 발전은 생산된 지식이 산업 활동에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교수의 연구 업적이 현실화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식체계의 순환성을 모를 리 없는 평가자들의 교육정책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은 사회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은 사회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Harold Lasswell은 비록 사회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와 활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활용될 수 없다면 살아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문이라는 이름을 걸고 생산되는 지식이 지식만의 창출과 사고의 공유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학문의 사회적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지식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데 활용되는 지식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지식이 이렇진대 이공학적 지식의 사회적 시명은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요 일간지의 교수 연구 업적 평가의 지표들이 연구 업적의 사회적 활용도 평가를 하지 못하는 점은 우리 지식인들 특히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학자들의 사회적 기여가 어느 정도나 부실한가의 현주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럿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여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를 꾸러 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매년 대학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그러므로 교수들의 책무는 새내기로 입학하는 젊은이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며, 대학의 문을 떠나는 졸업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이다. 대학의 교수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강의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들을 영접하고 배양하는 과정에서 지식 전달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 총수는 대학 졸업생을 기업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학교수들의 자부심에 매몰찬 한마디의 질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 교육한 지식이 산업 현장 또는 사회 일반에서 쓸모가 없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대학교수의 연구 업적 평가에 지식의 사회적 기여도 척도가 없는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이 막상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갈이라고 본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처럼 격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회도 없을 것이다. 20세기의 끝마디에서 우리는 21세기 미래의 청사진을 구워 가기보다는 국가 재정의 공동화라는 외환 위기를 경험하며 무자비한 구조조정, 이로 인한 대량 실업 등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끝없는 추락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특히 경제 성장의 기린아로서의 자부심과 그러한 성장의 과실을 전세계적으로 자랑하던지라 외환 위기로부터의 경제구조의 파멸과 사회의 불안이 가져다주는 충격은 가히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외환 위기를 초래한 이유로 여럿을 들 수 있지만 산업과 교역에 대한 국제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면서 현실의 직시를 기피한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방어적 태만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현실에 안주하며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식의 생산자로서 그리고 전달자로서의 지식인들은 끝없이 추락한 경제를 회생하고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을 갖춘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지식의 사회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대학교수들이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win-win 전략의 구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 실현 가능

대학교수의 창업 활동이라 함은 대학교수가 대학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장소에서 교수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업 활동의 주체는 기업인들이었다. 상이탑에서 지식 생산의 주체로만의 역할을 하였던 대학교수들이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

은 일견 생소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특히 사회의 일부에게는 학문의 상징인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천하다고 보여졌던 상업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의 창업 활동은 여러 면에서 소위 win-win 전략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과 대학,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금까지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좋은 행동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1세기가 지향하고 현실화하고 있는 사회의 정보화, 무한적이며 국경이 없는 시장 경쟁, 뿐만 아니라 지식의 역동적인 활용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걸맞은 매우 생산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대학교수의 창업 활동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보여지는 교수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지식 생산과 전달의 주체로서 교수가 염두에 두는 점은 생산된 지식이 어느 정도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감상할까에 관심과 우려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예술품을 보고 감상적인 느낌을 얻을 수 없고, 생산되고 전달된 지식이 현장에서 쓰여지지 못하고 외면된다고 하면 것처럼 절망스러운 경우도 없을 것이다. 교수가 창업을 하여 산업 생산의 주체가 되고 산업 생산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자신이 생산 또는 전달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이러한 지식의 현실적용성은 대단히 높을 것이다. 교수는 결국 지식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으며 현실수용도가 높은 지식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의 창업은 현실 적용성이 높은 지식의 선호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교수 자신

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의 경우에도 교수의 창업 활동은 매우 유익한 결과를 초래한다. 교수가 창업 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교수의 학문적 취향이나 관심을 중심으로 학습의 기회를 가져온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초래한다. 다름이 아니라 창업 활동에의 참여로 학생들은 일상적인 학습을 통해 얻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적용되는 학문을 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학업을 마무리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사전에 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 학습의 중요성은 대학수능시험을 위한 모의고사에서 잘 나타나듯이, 지식이나 기술의 사전 습득과 실습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사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은 제벌의 총수가 말했던 재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교수의 창업 활동은 모든 학생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교수의 창업 활동은 사회적 목적 달성에 있어 대학이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그 의미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양질의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 창업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살아 있는 지식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바로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수정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겠지만 대학교수의 창업 활동에 대학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나눌 수 있으면

대학 재정의 충당에 있어 등록금 의존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근간에 사립대학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대학법인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의 벤처에 투자할 용의가 있으며, 이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재정 충당의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대학은 교수의 창업 활동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살아 있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등의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재정 확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미국의 경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우에서 교수의 창업 활동이 대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숙명여대의 문화벤처사업, 숭실대의 사이버 학원사업, 중앙대의 잠치닷컴사업, KAIST의 티맥스소프트사 등은 대학 교수 벤처 창업사업이 대학의 사회적 기여에 한 수 단적 부분이 되며 대학재정의 충당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

대학교수 창업 활동은 산학협동을 통한 사회적 시너지의 창출

기업의 경우를 보면 교수의 창업 활동은 기업들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사전에 겸비한 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산업 현장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재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즉, 교수의 창업 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고용으로 산업 현장에 준비된 인력의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해진다. 그런가 하면 창업 사업을 꾸려 가는 교수와 또는 교수가 속해 있는 대학과 기업 간의 실질적인 산학협동을 실현

시킬 수 있다. 교수가 창업한 곳이 바로 기업 연구 사업의 전진기지 내지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별도의 연구를 위한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고서도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 내고 시험해 봄으로써 기술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교수들의 창업을 허용하고 창업 활동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주는 궁극적인 이익은 교수, 학생, 그리고 기업이 얻는 이익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각각의 이익을 곱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수 창업 활동으로 사회가 얻는 이익은 그야말로 각각의 이익에 α 가 더해진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산학협동을 통한 사회적 시너지의 창출이라고 하며 대학 교수의 창업 활동이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1세기의 사회가 전문화를 통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 그리고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요구하며 상대적 경쟁력의 구비만이 기업이나 국가의 생존력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지식의 실용화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며 지식의 실용화는 교수들의 창업 활동으로 구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문명**

목진휴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West Virginia 주립대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책학회 편집이사,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으로 현재 국민대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로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대학벤처의 현황과 전망」 등이 있다.